

한국콜마, 복합 기능성 화장품 원료 고부가가치화

한국콜마(대표 윤동한)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기능성 화장품 20개 품목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고 5월9일 발표했다.

승인받은 품목은 여름시즌을 겨냥해 미백과 자외선 차단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미백과 자외선 기능을 함께 가진 2중 복합 기능성 화장품 2개 품목이 포함돼 있다.

한국콜마는 “저가와 고가 브랜드로 양극화돼가고 있는 화장품시장에서 2중, 3중 복합 기능성 화장품 개발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차별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5/05/10>